

제목 Theme: 하나님의 계명 Commandment of God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22:34-46 절

34.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But when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y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35.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One of them, a lawyer, asked Him a question, testing Him,**

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Teacher,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And He said to him, "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is is the great and foremost commandment.**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the whole Law and the Prophets."**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Now while the Pharisees were gathered together, Jesus asked them a question:**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y said to Him, "The son of David."**

43.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He said to them, "Then how does David in the Spirit call Him 'Lord,' saying,**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BENEATH YOUR FEET"'"?**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If David then calls Him 'Lord,' how is He his son?"**

46.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No one was able to answer Him a word, nor did anyone dare from that day on to ask Him another question.**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유월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 장 23 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가셨을 때에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였다가 예수님께 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 장 15 절**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 지고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 장 23 절**부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했다가 역시 예수님께 지고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율법사 즉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나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큼니까 라고 질문하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대답할 수 없도록 지고 말았다는 것을 들은 그 들 중에 하나인 율법사 즉 서기관 중에 하나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34-35 절**). 그 질문의 내용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큼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지적하셔서 말하면 나머지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넘어지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신명기 6 장 5 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36-38 절)** 그리고 **레위기 19 장 18 절**을 인용하여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39-40 절)**라고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41 절**). 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42 절**). 그들의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윗의 자손이 곧 다윗이 공경했던 하나님 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 **시편 110 편 1 절**을 인용하여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43-45 절**).

이 질문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들이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데 함께 했던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 장**

9 절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믿어 실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외식적인 믿음으로 살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35 절)

1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 장 16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 없이 **자기의 뜻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4-7 절**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하였습니다.

3.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존경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 장 12-13 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42 절)

1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23 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에베소서 **5:17 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면서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 장 17 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신 하나님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3.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8-9 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붙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43 절)

1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18** 절에서 사도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누가복음 **4:1** 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위하여 사도행전 **13:52** 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본 질서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9** 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사역을 실천했음)”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4:31** 절에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3.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5** 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24** 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그의 전도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